

	수 요 예 배	금 요 예 배	대 청 예 배
사 회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선태희 청년
설 교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
기 성 경 봉	김사라 집사	합심기도	이지용 청년
설 교 금 소	사7:1~2	마6:9~10	마6:9~13
현 실 과 말 씀	310장	기 도	기 도
회 소	설 교 자	310장	말씀 나눔
축	설 교 자	설 교 자	사 회 자
	설 교 자	설 교 자	설 교 자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여름 수련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2. 주말(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3.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회자를 세울 계획입니다.
4. 교회 행사 사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추천 바랍니다.
5. 자원한 교회 청소구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김영선청년 무릎 수술 후 회복 중. 기도합니다.(순정병원 입원치료)

※ 광양백석교회 카페 <http://cafe.daum.net/..daumchurch>

예배담당 및 봉사

구 분	주일예배기도	수요예배기도	구 분	대청예배
다 음 주 예 배 위 원	유진만 안수집사	나정희 사모	사 회	김은승 청년
			기 도	선태희 청년
사 회	김태형 목사	피 아 노	김언약, 전소연 청년	
안 내	김종애 권사	헌 금	김영현 장로 · 김태현 안수집사	

※ 주방봉사06월21일 : 장애지 집사
 ※ 주방봉사06월28일 : 엄태순 권사

예배시간안내

구 분	예 배 시 간	구 분	예 배 시 간
주 일 예 배	(일)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오 후 8시 30분
오 후 찬 양 예 배	(일) 오후 1:30분	금 요 예 배	오 후 8시 30분
학 생 예 배	(일)9시30분 각예배실	새 벽 예 배	새 벽 5시 30분
유치부(태영아)예배	(일)10시10분 유아실	대 학 청 년 예 배	(토) 오후 8시 30분

창립일 2008. 5. 18.

제19권 제 25호.2026.06.2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 일 예 배	오 전 11시	설 교	사 회
오 후 찬 양 예 배	오 후 1시 30분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 개 회 송 영 찬양대
- * 찬 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 교 독 문 47.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 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 * 찬 송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대 표 기 도 엄태순 권사
- 받 을 말 씀 창6:5~8
- 찬 양 대 《하늘소망》
- 설 교 은혜를 입었더라
- 헌 금 / 찬 송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성도의 교제 교회소식 및 새 가족 환영
- * 주 기도문송 635장 / 하늘에 계신
- * 축 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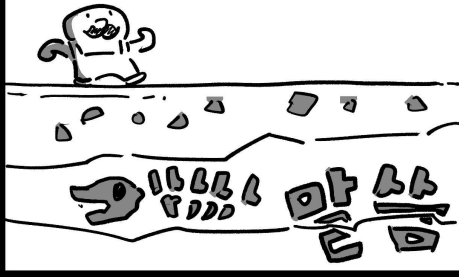
광양백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우)57782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길 43 (지번 : 중동1375-3) / 담임목사 김태형 ☎ 010-8600-5948

은예를 입었더라 (창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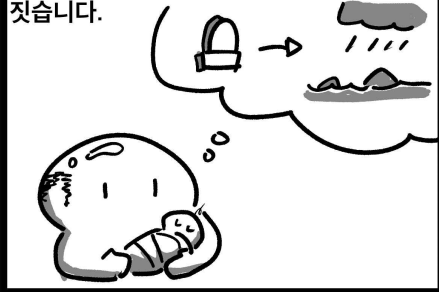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석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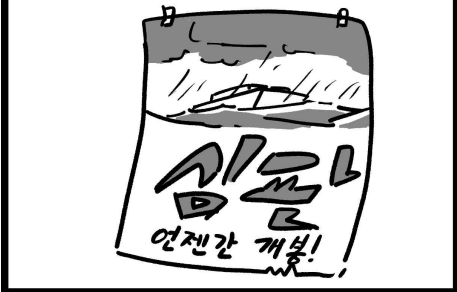
믿음의 인물들은 점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았죠.



아담의 후손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므두셀라 '그가 죽는 후에 심판이 보내질 것이다' 라고 짓습니다.



다른 말로 노아 때 갑작스레 심판이 내려진 게 아닌, 이미 이 때 심판이 예고됐던 것입니다.



므두셀라는 자신의 이름 뜻을 자식들에게 전했다나 그 중 그 말을 받아들인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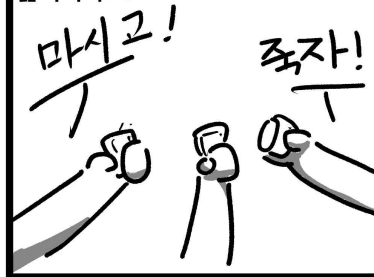


단 하나, 라멕 뿐이었죠. 그의 자녀들마저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은예를 입었더라 (창6:5~8)

왜? 그야 언약 따위 잊고 살아도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다 훨씬 즐거운 삶이니까요.



이건 본문 4절에 잘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며 살았다고 나오죠.



그들을 네피림,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력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건 보기엔 성공하고 좋은 삶인 것 같지만 결국엔 심판당해 죽을 삶이기 때문입니다.

